

# 금연시도율 상승... “성공하려면 ‘습관적 행동’ 극복해야”

최근 4년간 금연시도율 43.5% HR메디칼, ‘엔드퍼프’ 출시 세계 최초 흡연습관개선보조제 인체적용시험서 문제없음 확인

금연을 시도하는 흡연자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실제로 금연에 성공하는 사람은 크게 눈에 띄지 않고 있다. 금연시도율은 담배 종류와 상관없이 현재 흡연자 중 최근 1년 동안 담배를 끊고자 24시간 이상 금연을 시도한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이다.

질병관리청은 최근 4년간 국내 흡연자의 금연시도율이 평균 43.5%에 이르고 있다고 집계했다. 이러한 추세는 금연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노력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 국가통계포털 2018년도 자료 기준으로 볼 때, 금연 실패 요인으로는 스트레스 등 심리적 압박이 52.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와 함께, 피우던 습관 때문이라는 응답의 비율이 33.7%로 뒤를 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생활건강기업 HR메디칼은 전자식 흡연습관개선보조제 ‘엔드퍼프’를 출시한다고 6일 밝혔다. ‘엔드퍼프’는 니코틴 성분을 함유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담배와 유사한 형태로 흡입해 흡연습관을 개선하는 제품이다.

HR메디칼 관계자는 “금연 초기 니



HR메디칼이 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전자식 흡연습관개선보조제 ‘엔드퍼프(End-puff)’를 공개하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코틴 대체요법 등과 병행해 엔드퍼프를 사용할 수도 있다”며 “니코틴 의존도를 줄이면서 금연 실패 주요 원인인 ‘습관적 행동’ 등을 극복하기 위한 효과적인 금연 계획 수립이 가능해 금연 실패율을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HR메디칼은 ‘엔드퍼프’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국내 및 세계 최초 ‘흡연습관개선보조제’로 의약품 허가를 받았다.

HR메디칼은 지난 2014년 처음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전자식 흡연습관개선보조제 품목허가를 신청한 바 있다. 이후 연구개발과 독성 및 임상시험

을 거쳐 9년 만인 2023년 식약처 승인을 받는 데 성공했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금연보조제인 의약품과 ‘흡연욕구저해제’와 ‘흡연습관개선보조제’로 구분하고 있다. 이와 관련 HR메디칼 관계자는 “흡연습관개선보조제는 엔드퍼프를 제외하고 안전성 및 유효성 심사를 완료하거나 승인받은 제품은 없다”며 “현재 출시 중인 흡연욕구저해제의 경우에도 인체적용시험을 거친 제품은 없다”고 말했다.

HR메디칼에 따르면 엔드퍼프는 전자식 흡연습관개선보조제 국제규격인

증기관을 통해 13주 반복흡입독성시험과 소핵시험을 완료했다. 그 결과 ▲혈액학적 및 혈액생화학 검사 ▲안과학적 검사 ▲장기중량 측정 ▲병리조직학적 검사 ▲소핵 유발 여부 등에서 모두 이상이 없음을 입증했다.

또 대전대학교 대한한방병원에서 6주 동안 진행한 인체적용시험에서는 폐활량 평균값 증가, 혈액검사 상 안전성에 문제없음 등이 확인됐다. 특히 6주차에 금단 증상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출시된 ‘엔드퍼프’는 배터리가 탑재된 기기와 카트리지(파드), 멘톨향 용액 30ml 등으로 구성됐다. 흡연습관개선이 필요할 때 담배 대용으로 사용한다. 1일 권장 사용량은 약 1.5ml로 120~130회 흡입이다. 1일 권장 사용량에 따라 1병당 20일 정도 사용 가능하다.

HR메디칼은 향후 엔드퍼프를 활용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금연치료 프로그램 참여, 보건소와의 협업 등을 추진해 공중 보건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HR메디칼은 해외 시장 진출도 계획하고 있다. HR메디칼에 따르면 전 세계 금연 시장 규모는 2022년 기준 약 240억 달러로 추정된다. 연평균 성장률은 9.2%로 오는 2032년에는 57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 아모레퍼시픽

### ‘슬로우에이징’ 주제 강연

아모레퍼시픽의 스킨케어 브랜드 아이오페가 슬로우에이징 관련 전문 지식을 고객들과 나누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아이오페는 6일 서울 용산에 위치한 아모레퍼시픽 본사에서 ‘아이오페 클리니컬 랩 마스터 클래스’를 개최했다.

이날 브랜드 자문을 맡고 있는 정희원 서울 아산병원 노년내과 교수와 안지수 서울 모텔로 피부과 원장이 ‘가속노화의 시대에 느리게 나이 드는 법(슬로우에이징)’을 주제로 강연했다. 1부에서 정희원 교수가 슬로우에이징을 위한 생활 습관에 대해, 2부에서는 안지수 원장이 흡연 예방법을 설명했다.

아이오페는 지난 1996년부터 ‘아이오페 클리니컬 랩’을 통해 국내 여성의 피부에 대해 연구해 왔다. 현재도 전문가의 연구와 기술을 집약한 고효능 제품을 개발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청하 기자

## JW중외제약

### ‘페인엔젤 센’ 크기 축소 환자 복용 편의성 개선

JW중외제약이 제품 차별화를 통해 브랜드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JW중외제약은 소염진통제 ‘페인엔젤 센’을 재단장해 선보인다고 6일 밝혔다.

JW중외제약에 따르면 ‘페인엔젤 센’의 제형 크기가 기존 가로 19.7mm, 세로 8.7mm에서 가로 14.7mm, 세로 9.2mm로 축소됐다. 이와 관련 환자들의 복용 편의성을 개선했다는 것이 JW중외제약 측의 설명이다.

‘페인엔젤 센’은 해열, 진통, 소염 등의 효과를 갖춘 제품으로 두통, 치통, 생리통, 관절염 등 일반적인 통증 억제에 쓰인다.

/이청하 기자

## 애경산업

### 에이지투웨니스, 베트남서 ‘국제 여성의 날’ 행사 개최

생활뷰티기업 애경산업의 화장품 브랜드 ‘에이지투웨니스(AGE20’S)’가 베트남에서 브랜드 입지 강화에 나섰다.

애경산업은 에이지투웨니스가 지난 5일 베트남 호찌민에 위치한 JW메리어트 호텔에서 3월 8일 국제 여성의 날을 기념한 ‘에이지투웨니스 여성의 날’을 열었다고 6일 밝혔다.

베트남에서 ‘국제 여성의 날’은 여성의 사회 기여를 인정하고 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중요한 기념일 중 하나다. 이번 행사를 통해 베트남 소비자와 교류하고 브랜드 인지도를 높여나갈 것이라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에이지투웨니스 여성의 날’ 행사에는 브랜드 현지 모델인 응우옌 푹 투이 티엔을 비롯해 베트남 유명 뷰티 인플루언서, 유통 관계자 등이 150명 넘게 참석했다.

에이지투웨니스는 브랜드 모델 투이 티엔과 함께하는 토크쇼 및 기념 촬영, 디지털 마케팅 성공 사례 공유, 행운권 추첨 등을 마련했다. 또 유통 관계자와 인플루언서를 대상으로 ‘에이지투웨니스 어워드’도 진행했다.

무엇보다 에이지투웨니스는 베트남 현지 특성을 반영해 맑고 화사한 피부를 표현하는 방법을 소개했다. 특히 피부 진정·미백·냉각효과를 갖춘 ‘AGE20’S 오리지널 에센스 팩트 EX’를 활용했다.

/이청하 기자

# “수출물량 신속 생산으로 초격차 역량강화”

## 삼양식품, 밀양2공장 착공식

글로벌 메이저 식품기업으로 도약 총 1643억 투자... 총 5개 생산라인

삼양식품이 2022년 밀양1공장 완공 후 2년 만에 2공장 건설에 들어간다.

삼양식품은 6일 경남 밀양시 부북면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에서 밀양2공장 착공식을 개최했다.

착공식에는 김경수 삼양라운드스퀘어 부회장, 김동찬 삼양식품 대표이사, 전병우 삼양라운드스퀘어 전략총괄을 비롯해 권재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 김명주 경남도 경제부지사, 허동식 밀양시장 권한대행,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허흥 밀양시의장,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부사장과 임직원 등이 참석했다.

김경수 부회장은 이날 기념사에서 “글로벌 메이저 식품기업으로 도약하는 지금, 보다 적극적으로 수출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밀양2공장 신설을 결정하게 됐다”며 “밀양2공장은 생산혁신에 초점을 맞춰 신속한 대량생산뿐만 아니라 자동화, 효율화, 지능화 관점에서 더욱 진화한 설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밀양1공장, 2공장이 동시다발적으로 수출 물량을 생산하게 된다면, 우리는 초격차 역량강화를 통해 글로벌 메이저식품 기업으로서 위용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영상



6일 경남 밀양시 부북면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에서 진행된 밀양2공장 착공식에서 허동식 밀양시장 권한대행(왼쪽부터), 김명주 경남도 경제부지사, 김경수 삼양라운드스퀘어 부회장, 권재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 김동찬 삼양식품 대표이사가 기념 시삽을 하고 있다. /삼양식품

축사에서 “2027년까지 농식품과 전방산업을 10대 전략 수출 사업으로 키울 것”이라며 “오늘 착공하는 밀양2공장이 삼양라운드스퀘어와 K-푸드의 수출전초기지로서 그 역할을 유감없이 발휘하길 바란다. 정부도 든든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삼양식품은 밀양2공장 건설에 총 1643억원을 투자한다. 연면적 3만4576㎡에 지상 3층·지하 1층 규모로, 총 5개의 라면 생산라인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와 함께 밀양1공장보다 진화한 스마트팩토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글로벌 탭티어 수준의 완벽한 식품안전 시스템도 갖출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 내 완공 시 연간 최대 5억6000개의 라면 생산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삼양식품의 연간 최대 라면 생산량은 기존 18억개(원주, 익산, 밀양1

공장)에서 약 24억개로 증가하게 된다.

삼양식품은 밀양2공장은 완공 후 미주 시장을 겨냥한 전초기지로 활용할 예정이며, 밀양1공장은 중국 시장을 기반으로 수출 물량을 늘려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밀양시와 동반 성장하는 상생의 발전이자 지역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삼양식품은 2022년 5월 밀양1공장을 완공했다. 삼양식품은 모든 수출 물량을 국내에서 생산하고 있으며, 불닭볶음면의 세계적인 인기로 힘입어 전체 매출액은 2021년 6420억원, 2022년 9090억원, 2023년 1조1929억원으로 매년 큰 폭 증가하고 있다.

수출 호조세에 힘입어 삼양식품은 2022년 식품업계 최초로 ‘4억불 수출의 탑’을 수상하기도 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 알피바이오

### 박재경 신임 대표이사 내정



대웅제약과 미국 알피세라의 합작회사인 알피바이오가 ‘성과중심제’와 ‘마케팅 전략 강화’를 위한 새로운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

알피바이오는 핵심 매출처인 일반 의약품 부서 박재경 상무(사진)를 신임 공동대표이사로 내정했다고 6일 밝혔다.

알피바이오는 지난 2023년 개별 기준 매출액 151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2022년 대비 9.36% 상승한 역대 최대 매출 규모다. 박재경 상무는 매출 상승을 총괄하며 국내외 파트너 발굴 및 협업을 이끌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청하 기자